
조선 · 자동차 등 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

2019. 6.

금융위원회

목 차

I . 주력산업 금융지원방안 추진현황	1
II . 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	3
1. 주력산업 지원 신규프로그램	3
2. 기존 주력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보완	6
III . 향후 추진계획	8

I. 주력산업 금융지원 추진현황

◇ 조선·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경영애로 해소와 주요 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Two-track(맞춤형+汎用) 금융지원 추진

※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과정에서 부산('18.6월), 목포('18.7월), 고성('18.12월) 등 조선·자동차 현장방문,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·반영

○ 「조선업 활력제고방안」('18.11월) 등 업종별 발전전략 등을 통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발표

* 조선('18.11월), 자동차부품('18.12월), 시스템반도체('19.4월), 바이오헬스('19.5월)

가. 조선·자동차 맞춤형 프로그램

① (조선) 수주에도 불구하고 제작자금 확보 등이 어려운 중소 조선사·기자재사에게 제작금융^①·RG 보증^②, 만기연장^③ 지원

① (상생보증) 조선 3社 등의 출연을 통해 신·기보가 기자재 제작금융에 대해 보증 제공(0.1조원, '18.12월~) → '19.6.21일 기준 235억원 공급

② (RG발급 보증) 중소조선사 내수용 선박에 대한 산·기은의 RG 발급을 신보가 보증(0.1조원, '17.10월~) → '19.6.21일 기준 253억원 공급

③ (만기연장)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·보증의 만기를 '19년말까지 연장 → '19.6.21일 기준 16,226억원 실시

② (자동차) 완성차 판매 부진 등으로 단기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부품업체에게 회사채발행 지원^①·우대보증^②·만기연장^③ 지원

① (회사채발행 지원) 정부 등의 출연을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에 1조원의 장기 자금을 공급('19.3월~) → '19.6.21일 기준 1,885억원 공급

② (우대보증) 중소 부품업체에 대해 신·기보가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제공 ('18.11월~) → '19.6.21일 기준 5,276억원 공급

③ (만기연장)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·보증의 만기를 '19년말까지 연장 → '19.6.21일 기준 13,608억원 실시

나. 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汎用 금융 프로그램

- ① (산업구조 고도화)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·신시장 창출 등을 위한 초장기자금 지원(3년간 10조원)

◆ (지원내용) 중소·중견기업 설비·기술투자, 대중소 상생투자, 사업재편 분야에 기업 소요자금의 80% 지원 → '19.6.21일 기준 1조 4,404억원 승인

- ② (환경·안전투자) 중소·중견기업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 등 환경·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(3년간 5조원)

◆ (지원내용) 환경·안전 설비투자, 노후설비·건축물 개선, 생활SOC 분야 시설 투자에 저리자금(1%p 인하) 지원 → '19.6.21일 기준 3,166억원 승인

다. 금융지원 프로그램 보완 필요성

- 기업 자금수요를 보다 폭넓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촘촘히 설계할 필요

- ① 조선·자동차 외 다양한 산업에서도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필요한 운영자금 수요 지속
- ② 정책금융기관 외 시중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수요도 존재
- ③ 기존 워크아웃제도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*의 부실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체계 필요성도 제기

* 소규모 창업·중소기업은 개별은행 여신 50억원 이상 다중채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에서 배제될 가능성

⇒ 주력산업 분야 “기업현장 곳곳에 충분한 자금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신규 프로그램 마련

⇒ 중소조선사, 조선기자재·자동차부품업체 지원을 위해 既운영 중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업계의견을 반영하여 보완

Ⅱ. 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

1 주력산업 지원 신규 프로그램

① 산은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프로그램(안)

1.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

- 금년 1월부터 주력산업 중소·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'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'을 운영 중

- 다만, 유동성 부족 해소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수요 지속*

※ 5.27일, 더불어민주당 민생투어시(용인소재 중소기업 방문) 중소기업 에서
운전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

2. 산업은행 「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」 프로그램(안)

- ① (프로그램 개요) 조선·자동차 등 주력산업, 지방소재기업 등에
저리의 운영자금 지원

- ② (운용규모) 2.5조원(업체별 지원한도 : 중견 70억원, 중소 50억원)

- ③ (지원대상)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분야 중소·중견기업

- ① [주력산업] 자동차 / 조선 / 디스플레이 / 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('19년 경정)
[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] 소재·부품·장비 / 반도체·디스플레이·배터리
/ 자동차·조선 / 섬유·가전('19년 산업부 업무보고)
- ② [혁신성장] 8대 핵심선도산업(미래차, 드론, 핀테크 등) 등 신성장·신산업 분야

- ④ (금리우대) 최대 1.0%p 인하

- [기본우대] △0.8%p, [추가우대] △0.2%p(중점 공급분야 대상)

▶ [추가우대 적용대상] ① 조선·자동차 업종, ② 지방소재기업, ③ 물류, 관광,
보건, 콘텐츠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4대 유망서비스

② 산은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

1.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

- 산은·기은에서 주력산업 중소·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'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'을 시행 중
 - 설비·기술투자에 저리(0.5~0.7%p 인하)의 장기자금(최장 15년)을 공급하고 있으나,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운영에 따른 한계* 존재
 - * 조선·자동차산업 중소기업 등에서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
→ 시중은행이 주거래은행인 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 필요

2. 산업은행 「시설투자 특별온렌딩」 프로그램(안)

- ① (프로그램 개요) 시중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시설투자(설비·기술 투자) 확대 및 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온렌딩 신설

* [산업은행 온렌딩] 산업은행의 저리자금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공급

② (운용규모) '19년 1조원

※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보아가며, '20년에는 규모확대 검토

- 지원한도 : (업체별) 300억원, (건별) 150억원

③ (지원대상)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

- ① [주력산업] 자동차 / 조선 / 디스플레이 / 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('19년 경정)
[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] 소재·부품·장비 / 반도체·디스플레이·배터리 / 자동차·조선 / 섬유·가전('19년 산업부 업무보고)
- ② [혁신성장] 8대 핵심선도산업(미래차, 드론, 핀테크 등) 등 신성장·신산업 분야

④ (금리우대) 최대 0.45%p 인하

③ 신보 중소기업 「밸류업 프로그램」 신설

1.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

□ 경험과 역량을 쌓아나가는 창업·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위기 상황을 극복하고,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 필요

○ 그러나, 여신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애로

* 개별은행의 여신이 50억원 이상인 다중채무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이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워크아웃, 신속금융지원 등 재도약 기회를 부여

2. 신보 「밸류업 프로그램(안)」

① (프로그램 개요)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증·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, 재도약을 지원

② (운용규모) '19년중 60개 기업 시범 운용 → '20년부터 100개 기업 이상으로 확대하여 5년간 700개 기업 지원

③ (지원대상) 총여신 10억원 ~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중 경영 상태가 취약한 제조업, 고용창출기업, 혁신기업

① [여신규모] 개인워크아웃(담보채무 10억원 이하)와 기업워크아웃(개별여신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다중채무기업)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 중소기업

② [경영상태] 영업손실,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일시적 재무취약 상태

④ (지원내용) 민간 전문가의 경영진단 컨설팅* 실시 → 재도약을 위한 경영개선계획(원칙 3년, 1년연장 가능) 마련·이행 지원

* CPA, 세무사, 컨설팅 법인 등에 위탁(컨설팅 비용 400~1,000만원 전액 지원)

① (만기연장) 既보증 전액 만기연장 및 보증료 인하(최대 0.5%p ↓)

② (신규자금) 100% 전액보증, 고정 보증료율(1%)

1 조선기자재업체 제작금융 상생보증

1. 프로그램 개요 및 보완 필요성

- '18.12.7일부터 신·기보에서 조선기자재업체의 제작금융에 상생 보증(총 1,000억원 규모) 제공 중

- ▶ (지원대상) 수주계약이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
- ▶ (지원한도) 최대 30억원 이내(한도 심사시 기존보증 제외)
- ▶ (특례내용) 보증비율 90%, 보증료율 △0.3% 차감, 매출액 기준 완화 등

- 기자재업계에서 심사기준 완화·보증한도 상향 등을 지속 요청

※ [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] “조선업황 부진의 장기화로 인해 대부분의 조선기자재업체가 매출액·영업이익 등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어서 현재의 심사기준 하에서는 사실상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”

2. 보완방안

- 지원대상 확대 및 보증한도 상향 등 상생보증의 지원지변 확대

- ① (지원대상 확대) 「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→ 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모든 업체(예 : 일반기계업체)」로 확대
- ② (보증한도 확대) 기업당 보증한도를 「30억원 → 70억원」으로 상향하고(既 보증 제외), 신용등급별 보증한도도 상향
- ③ (심사기준 합리화) 업황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출액·영업이익 심사기준 완화

* (예시: 보증서발급 거절사유) '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& 적자증가'
→ '최근 3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& 적자증가'

② 중소조선사 RG발급 지원 프로그램

1. 프로그램 개요 및 보완 필요성

- 정책금융기관에서 중소조선사의 선박건조에 대한 RG 발급시
신보에서 보증 제공(1,000억원, '17.9월 시행)

- ▶ (지원대상) 산·기은에서 중소 조선사(내수용 선박)에 발급하는 RG
- ▶ (보증한도) **최대 70억원**(한도심사시 기존 보증 제외)
- ▶ (지원내용) 보증비율 75%, 보증료율 △0.5% 차감 등

- 중소조선사가 100억원 이상의 신조계약을 수주하더라도 RG
발급 보증규모 제약(한도 70억원)에 따른 애로* 발생

* 이 경우 중소조선사는 계약집행이 불가능하거나, 추가 담보 및 다수의 금융
기관으로부터 분산조달 등 금융애로가 발생

※ [중기중앙회] "RG발급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100억원 이상의 중형선박
신조계약에 대해서도 RG발급 보증을 요청"

2. 보완방안

- 100억원 이상의 중형선박 수주지원(최대 200억원)이 가능하도록
RG 특례보증 한도를 「70억원 → 150억원」 상향

③ 자동차 부품업체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(P-CB0)

1. 프로그램 개요 및 보완 필요성

- 중소·중견 자동차부품업체의 회사채발행 지원을 통해 1조원
규모의 장기자금을 순차적으로 공급('19.3월~)

- ▶ (지원대상) 중소·중견 자동차 부품업체
- ▶ (지원한도) 중소부품업체 150억원, 중견부품업체 250억원

- 지원대상 범위가 다소 협소*하여 자동차산업 전반의 활력을
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

* 엔진 등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품 등을 제조·판매하는 20개 업종

2. 보완방안

□ 지원대상·공급규모 확대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원 실시

① (지원대상) 지원대상을 「자동차 부품산업 → 자동차 부품 산업 연관 업종」으로 확대

* (예시)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, 안전유리 제조업 등

② (공급규모) 자금수요 및 소진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'19년 자금공급 규모를 「3,500억원 → 최대 5,000억원」으로 확대

※ 필요시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 총공급규모(3년간 1조원) 확대도 검토

③ (기업 발행부담 완화) 회사채발행 관련 수수료 등 발행비용을 최대 0.2%p 인하(중견기업 기준 발행비용은 평균 4.0% 중반 수준)

Ⅲ. 향후 추진계획

①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6.2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*

* 프로그램별 시행시기

(6.28일) 산은 「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」, 신보 「밸류업 프로그램」

(7.8일) 산은 「시설자금 특별온렌딩」

○ 프로그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산은·신보 영업점 교육 및 시중은행·업체 대상 홍보 강화

② 기존 프로그램 보완은 기관별로 관련 업무지침 개정을 거쳐 신속히 시행(7월초)

③ 프로그램별로 주기적 실적점검 등을 통해 기관의 적극적 자금 공급 독려